

학교폭력에서 평화까지 UCC '눈길'

불교계 다양한 주제 공모전 열여

인터넷·디지털카메라·스마트폰 등의 발달과 함께 일반인도 빠르고 쉽게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새로운 문화트렌드로 자리 잡은 UCC로 우리의 미디어 문화도 바뀌고 있다. 불교계에서도 다양한 UCC 공모전이 열려 눈길을 끈다. 봉은사, 정토회, 생명나눔 등의 UCC 공모전은 환경 학교폭력 자살 등의 사회 문제에서부터 평화 생명 사랑까지 다양한 주제로 대중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토회 좋은벗들(이사장 범모)과 EBS는 '2012년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지식채널e UCC공모전을 개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공모전에는 응모작 총 300여 편 중 6편을 선정하고 6월 23일 시상식을 진행했다.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별일 없나구요'는 학교폭력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형식적인 관심'을 현실감 있게 비판한 작품으로 평가받았다. 이밖에도 사교육에 맹드는 아이들이 엄마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룬 '엄마 말 들어'가 최우수상을, '거리의 시인 정재완' '춥불 든 노인들'이 우수상을, '당신은 누구와 연애하고 있습니까' '안녕하세요'가 장려상을 받았다. 수상작들은 EBS 지식채널e에서 방영돼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정토회 좋은벗들 측은 "오늘날 우리 피부에 가장 와 닿는 사회 문제들을 다룬 작품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당선작에 담긴 영상은 삶의 경험 속에서 발견된 구체적이고 섬세한 이야기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세상이 좀 더 따뜻해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2009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봉은사(주지진화)의 '청소년 UCC공모전'은 자유로운 소통으로 건전한 종교문화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지금까지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사랑(가족과 이웃)' '청소년, 이슈' '평화를 보다' 등 다양한 주제로 공모전을 실시해왔다.

봉은사 홍보팀은 "이 시대의 트렌드와 청소년 문제의식을 반영한 주제를 선정해 매년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다. 타인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부족함을 채워 소통과 화합하"고 전했다.

정토회-EBS와 지식채널e 공모

봉은사-청소년에게 소통 일깨워

생명나눔-자살 예방 공모전 열여

는 불교적 정신을 일깨우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위해 마련됐다"고 취지를 전했다.

해마다 응모작 수가 늘어나며 인지도를 넓히고 있는 봉은사 '청소년 UCC공모전'은 지난해에는 수상작 중 일부를 상영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올 하반기 2012년 공모전을 앞두고 있는 봉은사는 향후 '청소년 영상 토크쇼'를 마련 UCC감상 토크쇼 및 전문가 초청강연 등을 열 계획이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스님) 역시 자살예방 UCC공모전을 실시해 눈길을 끈다. 이번 공모전은 >생명의 소중함 >자살 예방 >자살 위기를 극복한 내용 등을 주제로 하며 7월 25일 마감한다.



불교계에서도 UCC 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메시지를 담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사진 왼쪽 위에서 아래로 봉은사의 대상으로 ①우리사랑 이웃사랑 이웃사랑(2009) ②관찰아(2010) ③형제(2011). 사진 오른쪽은 정토회 좋은벗들이 2012년 EBS와 함께 진행한 UCC공모전 당선작들. 위에서 아래로 ④ 대상 '별일 없나구요?' ⑤ 우수상 '거리의 시인 정재완' ⑥ 우수상 '춥불 든 노인'



이밖에도 불교계 UCC공모전으로는 대구불교총연합회 '형형색색 달구벌 관동놀이 공모전' 청소년과라미타의 '문화재 지킴이' 등이 대중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혜속 기자 bwjhs@hyunbul.com

남도답사 1번지 강진에서 고려불교 진수를 만나다

남도 답사 1번지 전남 강진은 역사적 문화적으로 특별한 곳이다. 유홍준 교수의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의 첫 코너를 장식해 답사문화의 부흥을 이끌었던 강진은 '모란이 피기까지'의 시인 김영랑의 고향이며 다산 정약용의 유배지로도 유명하다. 또한 무위사, 백련사 등은 그 존재만으로 답사객들의 호기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고려 후기 불교 결사 운동의 중심지였던 전남 강진의 유물들이 한자리에 모였다고. 국립광주박물관 기획특별전 '남도문화전 III-康津'이 9월 2일까지 국립광주박물관 2층 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 지역에서 꽃피웠던 역사와 문화를 선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 시대별로 구분했다. 또한 이를 인문지리, 선사-고대문화, 중-근세문화(도자문화, 불교문화, 유교문화), 근현대문화 등으로 구성해 관람객을 찾아간다.

불교 유물로는 >무위사 극락전 내벽 사면벽화 2점(보물 제1315호) >신라 명필 김생의 글씨를 집자한 '만덕산萬德山 백련사白蓮社' 현판 >보물 제1396호 만덕산 백련사사적비(탁본) >보물 제313호 월남사 진각국사비(탁본) 등이 선보인다.

특히, 최근 발견돼 최초로 공개되는 고려시대 고성사 청동보살좌상(전남유형문화재 제302호)은 주목할 만하다. 중국 송대부터 유행했던 여러 요소들이 가미돼 제작된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이와 비슷한 양식의 대흥사 금동보살좌상(보물 제1547호)도 함께 전시된다. 제작연대가 분명한 '육련사 목조여래좌상(1684년)'과 복장유물도 최초로 공개돼 주목 받는다.

이와 더불어 강진의 청자 문화도 조명한다. 국보 제60호 청자사자향로, 보물 제1023호 삼양국명청자합을 비롯 대표적 청자 명품과 함께 강진 사당리, 용

우리, 삼흥리 가마에서 출토된 청자 유물이 선보인다. 이 가마들은 고려 왕실에서 사용된 최고급 청자를 생산했던 곳으로 고려시대 관료체제를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유적들이다. 또한 강진에서 출발해 개성으로 가던 중 침몰한 청자운반선에서 발굴된 12세기 초반 강진에서 제작한 청자들도 공개된다.

또한 고산사 김정호가 만든 조선 최고의 채색 지도인 동여도(東輿圖), 강진 삼흥리에서 출토된 사신도가 그려진 고려시대 석관 등이 공개된다.

학술조사를 통해 확인된 구석기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 유적과 유물에 근거해 지역 문화의 변천 과정도 조명한다

광주박물관 '남도문화전' 개최 백련사 현판 등 불교유물 '다채' 고성사 청동보살좌상 최초 공개

다. 구석기부터 통일신라에 이르는 석기, 토기 등의 생활 자료들의 대부분은 발굴 이후 처음 공개된다. 이는 한 지역 내에서 역사적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문화적 양상을 추적할 수 있는 자료다.

강진의 근·현대문화도 엿볼 수 있다. 김영랑과 김현구로 대표되는 강진 출신의 시인들은 1930년대 '시문학파'의 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호남 현대시 문학의 출발점으로서의 그 의미가 크다. 동인지 '시문학(詩文學)' 지를 비롯, 1935년 간행된 그의 영랑시집 초간본, 그리고 김현구 시인의 친필원고도 공개된다. 특히 김현구 시인의 친필원고는 외부에는 최초로 공개된다.

이외에도 고려 도공들의 비색 청자를 계승하면서 현대적인 예술로 승화시킨 강진 청자와 특산물 등도 함께 전시된다. (062)570-7034 정혜속 기자



고성사 청동관음보살좌상



국보 제60호인 청자사자향로

부산 전통 장인 한자리에 모인다

전승공예 기능보유자 70여 작품 전시

부산박물관은 7월 17일-8월 26일까지 '혼재'로 이어온 맥脈 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불화장 권영관, 주종장 박한중, 사기장 故 김윤태, 화해장 안해표 등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전승공예부 기능보유자 작품 70여 점이 전시된다.

불화장 권영관은 이번 전시에서 축서사 후불탱화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권 씨는 불교미술대전에 누차 수상했으며 부산 범어사, 삼광사, 흥복 구인사, 전복 금산사 등 전국 주요 사찰은 물론 미국 일본 등

국외까지 약 350여점이 봉안됐다. 그는 경전 내용을 도상화 할 수 있는 기량과 함께 각종 안료와 배접 등에서 전통적인 기법을 충실히 고수하고 있다. 특히 전국 산전에서 구한 돌을 곱게 갈아 물감을 뿜아내는 석채기법에는 일생을 바쳐 쌓은 경험과 노력이 오롯이 담겨있다. 색이 선명하고 두터워 오랫동안 보존이 가능한 석채 불화를 이번 전시에서 만나볼 수 있다.

주종장 박한중은 2012년 임진년을 맞아 용의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을 출품 청명



불화장 권영관의 축서사 후불탱화

불화장 권영관, 축서사 후불탱 주종장 박한중, 용모습 문양 선풍

살아 있기 때문에 아프다

도심포교당의 수행일선에서 들려주는 평범한 삶의 지혜!

죽었다고 여겼던 사람이 아픔을 느끼면 아직 살아 있다는 것을 알고 매우 기뻐합니다. 이렇게 아픔을 견딜 수 있다면 아픔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아픔을 극복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픔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강도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대부분 고통 아닌 것을 고통으로, 불행 아닌 것을 불행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바꾸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성범스님은 1988년 통도사로 출가, 1989년 석산스님을 은사로 득도. 활산 성수선사에게 선을 배우고 문경 봉암사, 묘관음사, 북천암, 개심사, 정혜사 등 제방선원과 사랑도 지리산 등지의 토굴에서 정진하였다. 마곡사 공주포교당 지도법사로 포교활동을 하였고 현재 대전 구룡선원 주지로 포교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저서에는 금강경해설서 '꽃을 시샘하지 않는다'가 있다.

구룡선원 - 대전 서구 관저동 1086(2층) / 042)543-3722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호 → 보응당 문성 →
희응당 상균 → 원만당 석운

해동불교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